

상향비교 상황에서 웅대성 자기애와 암묵적, 명시적 시기심의 관계

김 미 정 현 명 호 조 예 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 수료 명예교수 조교수

본 연구는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연구와 임상적 관점의 상이한 주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실시되었다. 웅대성 자기애에서 명시적 반응과 암묵적 반응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시기심을 자기보고를 통한 명시적 시기심과 정서 오귀인 절차(Affect Misattribution Procedure)를 사용한 암묵적 시기심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상향비교 상황에서 웅대성 자기애 수준에 따라 암묵적 시기심과 명시적 시기심, 그리고 두 시기심 간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총 114명의 대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상향비교와 중립 비교 처치조건에 각각 56명과 58명이 배치되었다. 처치 이후 명시적 시기심(설문지)과 암묵적 시기심(정서 오귀인 절차)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처치조건이 명시적 시기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웅대성 자기애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처치조건이 암묵적 시기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웅대성 자기애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암묵적 시기심과 명시적 시기심 간 차이에 대해서도 웅대성 자기애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웅대성 자기애의 우월한 자기상이 내면의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고 은폐한다는 마스크 모델(mask model)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주요어 : 웅대성 자기애, 명시적 시기심, 암묵적 시기심, 사회비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예진,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401호
E-mail: yjcho@inje.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기애(Narcissism)는 개념 범위가 넓고, 연구 전통에 따라 자기애를 설명하는 방식과 심리적 적응 수준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이하다(박창현, 2020). 이러한 이질적인 기술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Pincus와 Lukowitsky (2010)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나르시시즘이 표현되는 방식에 주목하여, 자기애를 ‘웅대성(grandios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취약성 자기애는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수치심과 상관성이 높으며(양진원, 권석만, 2016), ‘불행한 얼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할 정도로 심리적, 행동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이 강하다(Jauk & Kanske, 2021). 그에 비해 웅대성 자기애는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정서적 문제와의 관련성이 낮다. 웅대성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이 평가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더 지적이고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자기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도 높다(Egan et al., 2014; Farwell & Wohlwend Lloyd, 1998; Rhodewalt & Eddings, 2001). 일부 연구자들은 웅대성 자기애와 자존감, 심리적 웰빙이 정적 상관을 보이고 우울, 불안, 신경증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들의 정신건강이 양호하고 적응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edikides et al., 2004; Zeigler-Hill et al., 2008). 그러나 웅대성 자기애자는 내면의 취약한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과장된 자기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Morf & Rhodewalt, 2001),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보호 및 자기고양 전략을 사용한다(Hepper et al., 2010).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자기보고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결과만으로 이들이 적응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웅대성 자기애는 자기보고로 확인되는 부적응적 정서반응은 낮으나, 대인관계 및 공격성 영역에서는 부적응적인 양상이 있음이 일관적으로 확인된다(박창현, 2020; Roche et al., 2013). 이들은 자신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의 부족을 보이거나(Paulhus, 1998), 본인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 관계의 친밀감을 손상시키기도 한다(Nicholls & Stukas, 2011). 또한 자신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폄하하거나(Morf & Rhodewalt, 1993), 자신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한다(Bushman & Baumeister, 1998). 즉, 거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적 차원을 조작하면서,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를 조작하여 우월한 자기감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이다. 웅대성 자기애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타인의 성격적 특성을 더 나쁘게 평가하였다(Kernis & Sun, 1994). 또한, 웅대성 자기애자가 다른 실험참여자보다 수행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었을 때, 자신보다 더 나은 수행을 한 사람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정하였다(Morf & Rhodewalt, 1993; South et al., 2003). 웅대성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게 만드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반응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기존중감은 높지만 자기애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확인되지 않았다(Hart et al., 2020). 이는 평가절하는 웅대성 자기애자가 자기위협적 상황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인관계적 양상임을 시사한다.

평가절하는 시기심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동이다. 시기심은 ‘남이 잘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이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고통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수반한다(Smith & Kim, 2007).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심은 평가절하와 공격적 반응을 촉진하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고통 기반 이중 시기심 척도를 개발한 Lange 등(2018)은 시기심을 상향적 사회비교의 결과로 경험하는 고통스럽고 불쾌한 정서로 보았으며, 동시에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적대적 의도를 포함하는 감정으로 설명하였다. 즉, 시기심은 자신보다 우월한 상대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하향 동기를 수반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시기심이 강할수록 상대방을 헐뜯는 경향이 강하며,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샤펜프로이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nge et al., 2016). 또한 시기심이 강할수록 우정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향량, 2016). 관계적 공격성은 헐뜯, 소문 퍼트리기, 사회적 배제와 같은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평판과 사회적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헐뜯, 나쁜 소문은 평가절하를 직접 언어로 표현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시기심과 자기애와의 관계는 임상적 관찰과 경험연구의 결과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에 대해 해석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임상적 관점과 경험연구 모두 웅대성 자기애자가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시기심 수준이 높

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인다. 그러나 임상적 관점에서는 평가절하와 같은 행동의 이면에 억압된 시기심이 존재한다고 보는 반면(Kernberg, 2004, 2008), 경험연구에서는 평가절하와 같은 자기보호 전략이 시기심을 빠르게 완화하므로 시기심 자체가 강하지 않다고 설명한다(Krizan & Johar, 2012). 즉, 임상적 관점에서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월한 자기개념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감정을 자각할 수 없고,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내면에 존재한다고 본다. 그에 비해 경험연구의 연구자는 자기보고식 반응을 통해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므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웅대성 자기애가 강하다고 시기심을 더 많이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Krizan & Johar, 2012; Neufeld & Johnson, 2018).

특히, Krizan와 Johar(2012)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포함된 시기심 관련 준거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할 정도로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의 무관련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들은 감정을 언어로 보고되는 의식가능한 영역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이 관련이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의식화되지 않는 무의식적 정서는 정신분석에서는 당연히 가정되는 개념이지만 관찰 가능한 행동과 반응에 중점을 둔 정신과학에서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개념이다. 그러나 체계적 조작과 관찰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에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암묵적 인지(기억, 학습, 지각, 사고)를 확인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Kihlstrom et al., 2000). 또한 신경과학의 발달로 인해 암묵적인 정서 발생

과 조절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Gyurak et al., 2011; Mauss et al., 2007; McRae et al., 2012), 무의식적 정서의 발생기제를 설명하는 논문들도 출판되고 있다(Smith & Lane, 2015, 2016). 즉, 이미 인지심리학에서는 무의식적 인지 내용을 확인하는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며, 정서와 관련된 신경과학 연구가 누적되면서 암묵적 정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점차 과학적인 설명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Krizan와 Johar(2012)의 결론은 자기 보고를 통해 측정된 명시적 시기심에 대해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 전반의 관련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암묵적 정서의 존재 가능성이 확증되고 있는 만큼, 임상적 관점에서 제기되어온 암묵적 시기심의 가능성 역시 경험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의 연구에서 주로 점화효과를 통해 암묵적 인지와 태도를 확인하였다(Fazio et al., 1986; Khilstrom et al., 2000). 점화효과는 어떤 대상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이 그 대상과 연합하여 가지고 있던 인지, 태도, 정서 등이 자동 활성화되고, 그 결과 관련된 판단이 촉진되는 것이다(Fazio, 2001). 이는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자동적 심리과정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화과제를 통해 웅대성 자기애의 명시적 반응과 암묵적 반응의 불일치를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웅대성 자기애자의 자기존중감의 이중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화과제를 응용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김효주, 2010; Gregg & Sedikides, 2010; Marissen et al., 2016). 연구 결과, 웅대성 자기애자는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자기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나, 암묵적 수준의 자기존중감은 취약성 자기애, 비자기애 집단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암묵적-명시적 자존감의 격차도 가장 컸다. 또한, 점화과제와 어휘결정과제를 사용한 연구(Hardaker et al., 2021; Horvath & Morf, 2009)에서 자기위협적인 점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웅대성 자기애자가 비자기애자보다 무가치함과 관련된 단어에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대한 자기 이미지와 달리 열등함, 무가치함과 같은 낮은 자기개념과 관련된 단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웅대성 자기애자가 의식적 수준에서는 거대한 자기 이미지에 일치하는 자기개념을 보여주지만, 비의식적 수준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심리적 내용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웅대성 자기애는 명시적 반응과 암묵적 반응이 불일치하는 이중적이고 역설적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은 시기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시기심은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자신이 열등하다는 감각에 기반한 자기위협적인 정서이므로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명시적 수준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암묵적 수준에서는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웅대성 자기애의 암묵적 자기개념을 주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정서적 영역으로 확대하여 암묵적 시기심의 존재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점화과제는 반응속도를 통해 관련 정서 개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한다. 즉, 관련된 정서 개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보다 반응속도를 통해 해당 정서 개념이 활성화되었는지, 억제되었는지 간접적

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점화과제에 투사의 개념을 결합한 정서 오귀인 절차(Affect Misattribution Procedure: AMP)는 자동 활성화된 정서 개념을 직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준홍, 정남운, 2019). 정서 오귀인 절차는 점화자극 이후 표적자극으로 힌디어, 한자, 추상적 그림과 같이 모호한 기호를 제시한다. 그리고 모호한 기호가 왜, 불쾌를 뜻하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사람들은 모호한 사건을 해석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 그 사건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Payne et al., 2005). 개인의 현재의 기분, 생각을 모호한 사건에 투사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사의 논리에 기반하여, 정서 오귀인 절차의 실행기제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제시되는 점화자극으로 인해 초기 자동적 정서가 활성화되고, 지금 활성화된 심리적 산물은 이후 제시되는 표적자극, 즉 모호한 자극을 판단하는데 투영된다. 따라서 표적자극에 대한 판단 내용은 선행된 점화자극에서 활성화된 정서로 볼 수 있다(Payne & Lundberg, 2014).

정서 오귀인 절차는 시행방법이 간단하고 암묵적 정서개념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정 대상에 대한 호, 불호와 같은 넓은 개념의 정서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울, 분노, 공포와 같은 개별정서를 확인하는데도 유용하였다(Rohr et al., 2015). 이 외에도 편견, 도덕적 가치, 정신병리 등 여러 분야에서 암묵적 반응을 측정하였다(김지혜, 김상학, 2022; Payne et al., 2005; Teige-Mocigemba et al., 2017; Tucker et al., 2017). 이처럼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될 뿐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Payne와 Lundberg(2014)는 정서 오귀인 절차를 사용한 10년간의 연구자료 중 신뢰도 계수가 포함된 45개의 연구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알파 값은 .47에서 .95 사이였으며, 평균 Cronbach's α 는 .81(95% CI [0.77, 0.85])이었다. 그리고 Cameron 등(2012)은 순차점화과제를 사용한 연구로 메타분석한 결과, 정서 오귀인 절차의 타당도와 민감도가 다른 순차점화과제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정서 오귀인 과제의 측정값과 명시적 태도의 측정치의 상관성이 다른 점화과제와 명시적 태도의 측정치의 상관값보다 높았다(정서 오귀인 과제: $r=.30$, 어휘판단과제: $r=.18$, 평가점화과제: $r=.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오귀인 절차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점, 점화된 정서개념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는 장점에 기반하여 암묵적 시기심을 측정하는 도구로 정서 오귀인 절차를 사용하고자 한다.

실험설계는 정서 오귀인 절차를 통해 개별 정서를 측정한 Rohr 등(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체화하였다. Rohr 등(2015)은 점화자극의 가시성을 낮추기 위해 점화자극과 표적자극 사이에 차폐자극을 두었으며, 점화자극의 노출시간을 24ms로 짧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트북 화면의 주사율(120Hz)을 고려하여 점화자극을 17ms로 설정하였다. 또한, 점화자극이 시작된 후 표적 자극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인 자극 개시 비동시성(Stimulus Onset Asynchrony: SOA)이 약 100ms 전후일 때, 점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Schmidt et al., 2011), 자극 간 간격을 93ms로 하여, SOA를 110ms로 설정하였다. 표적자극이 어떠한 정서를 의미하는 것 같은지 평가하는 반응선택지는 시기심을 뜻하는 ‘샘나는’과 사회비교

상황에서 정서적 관여가 발생하지 않음을 뜻하는 ‘무관심한’으로 하였다.

기존에 자기애와 시기심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우수한 학점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주인공의 인터뷰 기사를 보여주거나, 참여자 개인이 시기심을 느꼈던 경험을 대상을 상상하도록 하여 시기심을 유발하였다(Cohen Charash, 2009; Crusius & Lange, 2014; Hill et al., 2011; Krizan & Johar,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우월한 요건을 가진 개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사진을 사용하여 시기심을 유발하고자 한다. 온라인이 발달하고 다양한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SNS를 접하면서, SNS의 주인공에 대해 시기심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고, SNS 사용과 시기심의 관계, 그리고 이 시기심이 다른 정신 건강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이은지, 2024; 이홍숙, 2019; Abdellatif, 2022; Li, 2019; Lim & Kim, 2018; Lim & Yang, 2015).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SNS 사용이 늘어났고, 다른 사람의 SNS 계정을 살펴보면서 시기심을 느끼는 경향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비교처치자극으로 SNS 사진을 노출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덜 인위적이고,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처치자극으로 SNS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선택하였다. 해당 SNS는 글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을 동시에 첨부할 수 있어서, 문자로만 제시되는 다른 SNS보다 좀 더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웅대성 자기애의 역설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기심을 자기보고의 명시적 시기심만이 아니라 자동적이고 비언어적 반응의

암묵적 시기심을 함께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설문응답과 함께 정서 오귀인 절차를 통해 명시적, 암묵적 시기심을 확인하였다.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1. 상향비교 상황에서 웅대성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암묵적 시기심은 높게 나타나지만, 명시적 시기심은 웅대성 자기애 수준에 따라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상향비교 상황에서 웅대성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암묵적-명시적 시기심 간의 격차도 클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시기심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 처지, 입장인 유사성이 높은 대상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는 기존 연구(Casu, 2015; Smith & Kim, 2007; Tesser & Collins, 1988)에 기반하여, 참여자가 사진 속 비교대상을 자신과 유사한 인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를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연령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나이를 만 18세 이상 26세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웅대성 자기애 수준이 특정 처치조건에 편향되지 않도록 본 실험에 앞서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실시하고, NPI 점수를 고려하여 처치조건에 참여자를 배정하였다. 정서 오귀인 절차에서 표적자극인 모호한 기호로 힌디어를 사용하였으므로 힌디어를 배웠거나 사용가능한 사람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과제관리번호: 1041078-

20251212-HR-439). 오프라인 및 온라인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총 115명의 대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중 1명은 정서 오귀인 절차에서 사용한 주시점(+)을 모호한 기호로 착각했다고 보고하였고, 이 참여자를 제외한 총 114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상향비교조건에 56명(남: 18, 여: 38), 중립비교조건에 58(남: 13, 여: 45)명이었다. 동의서 작성 시,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도중에 중단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지 참여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실험은 약 20-25분 가량 소요되었고, 참가비로 현금 10,000원을 지급하였다.

측정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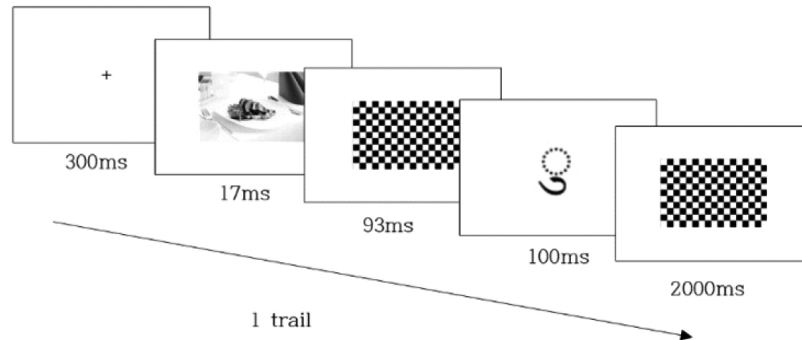
자기애적 성격 질문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과 Hall (1979, 1981)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3판(DSM-III)에 포함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준거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지이다. NPI는 거대한 자기 표상과 자기 과시의 경향을 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수정 (1999)이 번안 및 타당화한 설문지를 정남운 (2001)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타당화하여 32 문항으로 축소한 버전으로 사용했다. 각 문항마다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2개의 문장이 제시되며, 둘 중에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자기애적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을 선택하면 1점, 그렇지 않은 문장을 선택하면 0점으로 채점되고, 총점은 0점~32점이다. 정남운(2001)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에피소드적 시기심 척도(Episodic Envy Scale: EES). 본 연구에서는 SNS 사진에 노출된 후 얼마나 시기심을 느끼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다. 에피소드적 시기심 척도는 Cohen-Charash(2009)가 일화적 시기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총 9개 문항, 9점 리커트 척도이다(1: 전혀 아니다~9: 매우 그렇다). 각 문항 점수의 총합 점수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기심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배현영(2016)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현영의 연구는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문항에서 자신이 비교하는 상대방을 '동료'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라는 단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동료 대신에 '그(그녀)'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2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제 (1974)가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10문항,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10문항 중 3, 5, 8, 9, 10은 역문항으로 되어 있다. 총점은 1점에서 40점 사이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웅대성 자기애의 고유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로 확인되었다.

정서 오귀인 절차(Affect Misattribution Procedure: AMP).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시

그림 1. 정서 오귀인 절차 1회 시행



기심을 확인하기 위해 정서 오귀인 절차¹⁾를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 오귀인 절차는 WPF(Window Presentation Foundation, C#)를 사용하여 전산화하였고, 프로그램은 Visual Studio 2022(.NET Framework 4.5.2)에서 구현되었다. 본 과제는 14인치 Samsung Galaxy Book5 Pro 노트북(해상도 2880 × 1800, Dynamic AMOLED 2X 디스플레이, 주사율 120Hz)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정서 오귀인 절차에서 1회 시행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가장 먼저 화면에 가운데에 주시할 수 있도록 주시점이 300ms 동안 제시되며, 이후에 점화 사진이 17ms 동안 노출된다. 차폐 자극인 격자무늬 사진이 93ms 동안 나타난 후, 표적 자극인 힌디어가 100ms 동안 나타난다. 이후 2000ms 동안 차폐 자극이 제시되며, 이 상태에서 참여자는 직전에 보았던 모호한 기호(힌디어)가 ‘무관심한’과 ‘샘나는’이라는 단어 중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선택하게 된다.

정서 오귀인 과제는 연습 시행 20회, 본 시행 120회로 구성되었다. 본 시행은 30회씩, 4

세트에 구성되었다. 한 세트인 30회는 점화 자극이 상향 조건 사진인 경우가 10회, 중립 조건 사진인 경우가 20회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총 120회 중 40회는 상향 조건의 사진, 80회는 중립 조건의 사진으로 점화 자극이 제시되었다. 하나의 점화 사진은 총 120회 중 2번 제시되며, 힌디어도 총 120회 중 2번이 제시된다. 따라서 정서 오귀인 과제에서 사용된 상향 조건의 점화 사진은 20장, 중립 조건의 점화사진은 40장이며, 힌디어 철자는 60개가 사용되었다. 점화 사진은 사진의 유형(인물, 사물, 집, 음식, 증서)마다 개수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사진은 무작위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반응 응답은 ‘샘나는’ 혹은 ‘무관심한’이라는 정서 형용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양손 검지를 사용하여 D(왼쪽 검지) 혹은 K(오른쪽 검지)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키보드 버튼과 정서 형용사와의 매칭은 상호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암묵적 시기심은 측정값은 (상향점화자극에서 ‘샘나는’ 반응 수 / 상향점화자극 총 반응수) - (중립점화자극에서 ‘샘나는’ 반응 수 / 중립점화자극의 총 반응수)로 하였다.

1) 정서 오귀인 절차 프로그램을 구현해주신 김형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제선택과제. 정서 오귀인 절차에서 제시된 점화 자극이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자각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강제선택과제를 실시하였다. 강제선택과제는 점화 자극을 자각했는지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Reingold & Merikle, 1988; Xin, Lei & Yong, 2022). 본 연구의 강제선택과제는 점화자극을 정서 오귀인 절차와 동일한 속도(17ms)로 노출한 후, 뒤이어 화면의 양쪽에 2개의 사진을 제시하였고, 2개의 사진 중 직전에 보았던 사진과 같은 사진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했다. 2개의 사진은 모두 점화자극으로 사용했던 사진들로 제시하였다.

강제 선택 과제는 총 40회 시도로 구성하였다. 점화 사진을 정확하게 선택한 빈도를 총 시도수로 나누어 지각정확도를 구하였다. 실험과정에서 실제 점화자극을 자각한 정도가 암묵적 시기심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통계처리 과정에서 지각정확도 지표를 공변량 처리하였다.

실험 재료

자극선정. 암묵적 시기심을 측정하기에 앞서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상향비교자극인 SNS(인스타그램)계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시기심 연구에 기반하여 상향비교대상의 조건을 살펴보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S에 사용할 사진과 정서 오귀인 절차에 사용할 사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SNS에서 사용된 사진은 정서 오귀인 절차를 시행하기 직전에 이미 주의 깊게 탐색한 자료이다. 따라서 정서 오귀인 절차의 점화자극으로 동일한 SNS 사진을 이용하게 되

면 반복노출로 인해 자극-반응 학습이 발생할 수 있다(Horner & Henson, 2008). 이러한 학습효과는 점화효과를 왜곡하여 참여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서 오귀인 절차에서는 SNS 사진과 동일한 유형이지만 서로 다른 사진을 추가로 선정하여 점화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첫 번째, 인스타그램에 사용할 사진 선정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 기존의 사회 비교 및 시기심에 관련된 연구에 기반하여 상향 조건을 특징짓는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잘 반영하는 사진 유형을 선정하였다. 2) 연구 대상의 나이대인 남녀 대학생(남녀 각 2인)을 인터뷰하여, 선정한 사진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3) 대학생의 피드백을 통해 최종 선정한 대표 사진을 남, 녀 대학생 40명(남: 20명, 여: 20명)에게 평정하도록 하여, 상향 조건과 중립 조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기존의 사회비교 및 시기심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비교 과정에서 상향 조건을 잘 나타내는 특징으로 높은 학업 성적, 매력적인 외모, 경제적인 부유함이 포함되었다(Baumel & Berant, 2015; Hill et al., 2011; Krizan & Johar, 2012; Smith & Kim, 2007).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학업성취, 외모, 경제적 부유함, 이 세가지 영역으로 정하여 인스타그램에 사용할 상향 및 중립조건 사진을 선정하였다. 학업성적과 외모 영역은 각각 1개의 사진으로 구성했고, 경제적 부유함 영역은 물건, 집, 음식 사진으로 총 3개의 사진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각 처치조건마다 최종 5개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등록되었다. 먼저 연구자가 외모, 성적, 물건, 집, 음식, 각 요소마다 중립 조건 3장, 상향조건 3장의 사진을 골랐으며,

이를 남자 대학생 2명과 여자 대학생 2명에게 질적 피드백을 받았다. 대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의견에 기반하여 각 영역마다 1장의 사진을 선택하였다. 최종 선정된 사진은 상향 및 중립조건 각각 7장 - 인물(남, 녀), 물건(남, 녀), 음식, 집, 증서 - 으로 총 14장이었다. 총 14장의 사진이 상향조건과 중립조건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 40명(남: 20명, 여: 20명)에게 해당사진이 상향조건의 정서 형용사(매력적인, 부유한, 똑똑한)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했다. 상향조건의 사진과 중립조건의 사진의 평정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유의하였다($t(39)=-10.77, p<.001$). 상향조건 사진의 평균점수는 6.64점($SD=1.01$), 중립조건의 평균점수는 4.50점($SD=1.03$)이었다.

두 번째, 정서 오귀인 절차에 사용하는 상향 및 중립 조건의 사진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1) 인스타그램에 사용된 사진과 동일한 인물 혹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다른 인물일 경우 비슷한 외형과 모습을 보이는 사진, 동일한 브랜드의 다른 물건 등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인스타그램의 주인공과 비슷한 외형의 다른 인물사진, 동일한 브랜드의 다른 물건 사진만 평정하였다. 평정할 점화자극 사진은 상향조건이 14장, 중립조건이 58장으로 총 72개의 사진이었다. 2) 남녀 대학생 19명(남 5명, 여 14명)을 통해 해당 사진을 9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상향 조건과 중립 조건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확인하였다. 독립표본 t-test 결과, 두 조건의 사진평정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70)=14.95, p<.001$). 상향조건의 점화자극은 평균 평정 점수는 7.15($SD=0.80$)였으며, 중

립조건의 점화자극의 평균 점수는 4.13($SD=0.6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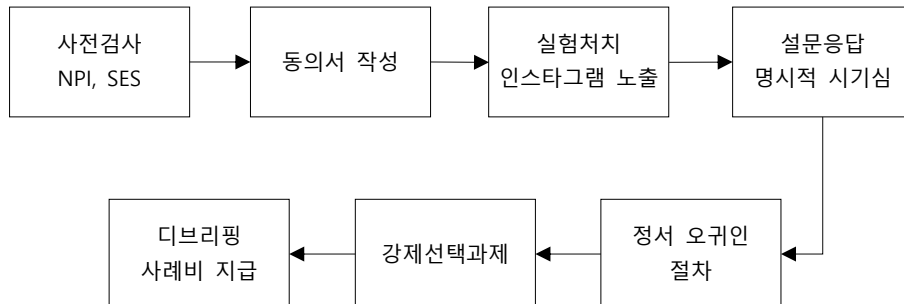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계정 설정은 아래와 같이 하였다. 계정당 총 5장의 사진(인물, 집, 음식, 증서, 사물)을 동일한 순서로 하여 5개의 게시물을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계정의 첫 화면에는 해당 계정 사용자의 팔로워 숫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각 게시물에는 그 게시물을 선호한다는 ‘좋아요’ 숫자도 표시가 된다. 이 두 숫자는 계정 사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와 호감도를 얻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Kleemans et al., 2018). 따라서 상향조건의 계정은 팔로워와 좋아요 숫자를 매우 높게 설정했고(700여명), 중립조건의 계정은 팔로워와 좋아요 숫자를 낮게 설정하였다(10여명).

실험 절차

두 처치 조건에 NPI 점수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실험 처치 전에 먼저 자기애적 성격검사(NPI)와 자기존중감 척도(SES)를 실시하였다. NPI 점수에 기반하여, 참여자를 상향 비교 집단과 중립 비교 집단에 배정하였다.

참가자는 실험자로부터 실험 절차를 설명 듣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동의서 작성 후, 컴퓨터로 처치 자극인 인스타그램 사진을 관찰하였다. 인스타그램 노출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사진 형태로 저장하여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따라 사진이 자동 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처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제 계정을 제공하게 되면 개인마다 게시물을 확인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페이지로 연동되는 아이콘을 직접 눌러서 다

그림 2. 실험 절차



른 계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자동 노출되는 사진은 게시물 5장과 5개의 게시물이 작은 사진으로 정렬되어 있는 프로필 화면 1장으로 총 6장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진 1장당 10초 동안 노출되며, 총 1분이 소요되었다. 인스타그램 사진의 관찰이 종료되면, 일화적 시기심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이 끝나면, 암묵적 시기심을 측정하는 정서 오귀인 절차를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강제선택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과제를 완료한 후 간단한 사후 설명과 함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실험 절차는 아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화 점수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사회비교조건과 웅대성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조절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절효과가 웅대성 자기애의 고유한 효과임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존중감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한편 암묵적 시기심은 상향비교 자극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암묵적 시기심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할 때, 점화자극에 대한 지각정확도를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32과 Hayes의 macro process 5.0을 사용하였다.

실험설계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계는 사회비교조건(상향, 중립, 비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웅대성 자기애를 조절변인으로 하는 참여자 간 설계이다. 종속변인은 정서 오귀인 절차를 통해 측정된 암묵적 시기심 점수, 에피소드적 시기심 척도를 얻은 명시적 시기심 점수, 그리고 암묵적 시기심과 명시적 시기심의 차이 점수로 구성하였다.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차이값은 암묵적 시기심과 명시적 시기심의 원점수를 표준

결 과

기초통계

실험과정에서 표적자극인 모호한 기호를 주시점(+)으로 착각한 참여자 1인의 결과를 제외한, 총 114명의 연구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2와 7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6).

처치 조건의 성별, 나이, 웅대성 자기애와

표 1. 사회비교 처치의 조작점검

	상향조건 평균(표준편차)	중립조건 평균(표준편차)	t 검정
매력적인	5.78(2.31)	4.05(1.83)	-4.406 ^{***}
부유한	8.35(0.70)	4.68(1.73)	-14.558 ^{***}
똑똑한	6.98(1.69)	5.26(1.53)	-5.639 ^{***}

*** $p < .001$

자기존중감의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처치조건에 따른 성별, 웅대성 자기애, 자기존중감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성별: $\chi(1)=1.36$, $p=.24$, 나이: $t(112)=-0.68$, $p=.95$, 웅대성 자기애: $t(112)=-0.18$, $p=.86$, 자아존중감: $t(112)=-0.10$, $p=.92$).

사회비교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력적인’, ‘부유한’, ‘똑똑한’과 같이 우월함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제시한 후 SNS 주인공이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평정하도록 했다. 평정척도는 9점 리커트를 사용했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상향조건과 중립조건의 처치가 적절했음을 확인했다(매력적인: $t(110)=-4.41$, $p<.001$, 부유한: $t(110)=-14.56$, $p<.001$, 똑똑한: $t(110)=-5.64$, $p<.001$). 조작 점검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암묵적 시기심의 계산식은 (상향점화자극에서 ‘샘나는’ 반응수 / 상향점화자극 총 반응수) - (중립점화자극에서 ‘샘나는’ 반응수 / 중립점화자극 총 반응수)이다. 상향점화자극에서 ‘샘나는’에 응답한 비율에서 중립점화자극에서 ‘샘나는’에 응답한 비율을 빼는 이유는 피검자마다 점화자극과 관련없이 ‘샘나는’이라는 정서 형용사를 선택하는 반응 편향이

다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립점화자극에 ‘샘나는’을 선택한 비율이 처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암묵적 시기심의 값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두 처치 집단 간에 중립점화자극에서 ‘샘나는’ 형용사를 선택한 비율의 차이 여부를 확인했으며, 결과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112)=0.77$, $p=.44$).

표 2에 처치 조건 별(상향비교, 중립비교) 주요 변인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상향 비교 조건일 경우, 웅대성 자기애와 명시적 시기심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18$, $p=.18$). 그러나 암묵적 시기심과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차이값과 정적인 상관이 확인되었다(IE: $r=.30$, $p<0.5$, GAP: $r=.44$, $p<.001$). 중립조건의 경우, 웅대성 자기애와 명시적 시기심 및 암묵적 시기심,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차이값의 상관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EE: $r=-.10$, $p=.46$, IE: $r=-.08$, $p=.57$, GAP: $r=.12$, $p=.37$).

사회비교처치의 주효과

처치 조건에 따라 명시적 시기심과 암묵적 시기심의 발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표 2. 각 처치조건 별 상관, 평균, 표준편차

		NPI	SES	EE	IE	GAP
	NPI		.51 ^{***}	-.18	.30 [*]	.44 ^{***}
	SES	.45 ^{***}		-.34 [*]	-.14	.13
	EE	-.10	-.30 [*]		.36 ^{***}	-.45 ^{***}
	IE	.08	-.03	-.03		.67 ^{***}
	GAP	.12	.26 [*]	-.93 ^{***}	.40 ^{**}	
상향비교	<i>M</i>	12.91	2.88	4.50	0.35	0.02
조건	<i>SD</i>	6.90	0.56	1.04	0.24	0.97
중립비교	<i>M</i>	12.69	2.87	2.67	-0.03	-0.05
조건	<i>SD</i>	6.62	0.44	0.92	0.07	0.75

주. 상향조건 N=56, 중립조건 N=58, 대각선을 중심으로 상단은 상향조건의 변인 간 상관, 하단은 중립조건의 변인 간 상관; NPI: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웅대성 자기애), SES: Self-Esteem Scale(자아존중감); EE: Explicit Envy(명시적 시기심), IE: Implicit Envy(암묵적 시기심); GAP: Implicit-Explicit Envy의 차이값(표준화 점수로 계산)

* $p < 0.5$, ** $p < 0.01$, *** $p < 0.001$

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립조건보다 상향조건일 때, 명시적 시기심이 유의하게 높았다($\beta=1.83$, $t=9.91$, $p<0.001$). 암묵적 시기심의 경우, 측정과정에서 점화자극의 인식 정도가 ‘샘나는’ 형용사의 응답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고자 강제선택과제를 통해 확인한 지각정확도 요인을 공변량으로 처리하였다. 확인 결과, 점화자극의 지각정확도는 종속변인인 암묵적 시기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11$, $t=1.7$, $p=0.10$). 그리고 지각정확도를 통제하여도 중립조건보다 상향조건일 때 암묵적 시기심이 유의하게 높았다($\beta=.72$, $t=11.18$, $p<0.001$).

사회비교처치와 시기심과의 관계에서 웅대성 자기애의 조절효과

사회비교 처치가 명시적 시기심과 암묵적 시기심,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차이값에 미치는 영향이 웅대성 자기애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Macro Process v 5.0의 model1을 이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명시적 시기심을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최종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다($F(4,109)=29.78$, $p<0.001$, $R^2=.52$). 통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명시적 시기심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b=-0.64$, $t=-3.12$, $p<0.01$). 처치조건은 명시적 시기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b=1.83$, $t=10.35$, $p<0.001$), 웅대성 자기애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0.01$, $t=0.36$, $p=.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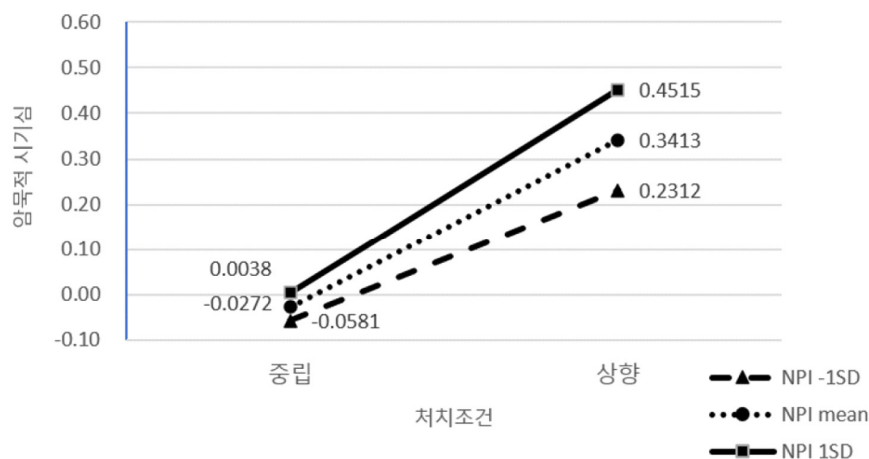
또한 처치조건이 명시적 시기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웅대성 자기애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b=-0.01$, $t=-0.32$, $p=.75$).

다음으로 암묵적 시기심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웅대성 자기애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종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다($F(5,108)=33.23$, $p<.001$, $R^2=.6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인인 점화자극의 지각정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0.19$, $t=1.19$, $p=.24$).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암묵적 시기심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0.11$, $t=-3.01$, $p<.01$). 주효과를 살펴보면, 사회비교처치는 암묵적 시기심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0.37$, $t=11.93$, $p<.001$). 그에 비해 웅대성 자기애는 암묵적 시기심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b=0.00$, $t=1.16$, $p=.25$). 처치조건이 암묵적 시기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웅대성 자기애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1$, $t=2.27$, $p<.05$). 상호작용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Pick-a-point 방법(-1SD, 평균, +1SD)에 따른 단순 기울기를 산출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상황

처치조건일 경우, 웅대성 자기애 점수가 높아 질수록 암묵적 시기심의 강도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종속 변인을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차이점수로 하여 웅대성 자기애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최종 모형은 유의하였다($F(5,108)=3.19$, $p<.001$, $R^2=.3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인인 점화자극의 지각정확도와 자아존중감 모두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차이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지각정확도: $b=-0.50$, $t=-0.64$, $p=.52$, 자아존중감: $b=0.05$, $t=0.29$, $p=.78$). 처치조건과 웅대성 자기애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처치조건: $b=0.06$, $t=0.37$, $p=.71$, 웅대성 자기애: $b=0.01$, $t=0.73$, $p=.47$). 그러나 처치조건과 웅대성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는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차이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0.05$, $t=2.09$, $p<.05$). 이에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Pick-a-point 방법(-1SD, 평균, +1SD)에 따른 단순기울기를 산출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또한, Johnson-Neyman 절차를 통해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영역을 확

그림 3. 처치조건과 웅대성 자기애에 따른 암묵적 시기심



인하였다(그림 5). 그 결과 웅대성 자기애의 평균중심화 점수가 11.27점 이상인 경우에 상향비교 처치조건이 암묵적-명시적 차이값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웅대성 자기애의 원점수로는 24.07점(웅대성 자기애 평균: 12.8점) 이상으로, 관측치의 상위 2.63%에 해당하였다.

그림 4. 처치조건과 웅대성 자기애에 따른 암묵적-명시적 시기심 차이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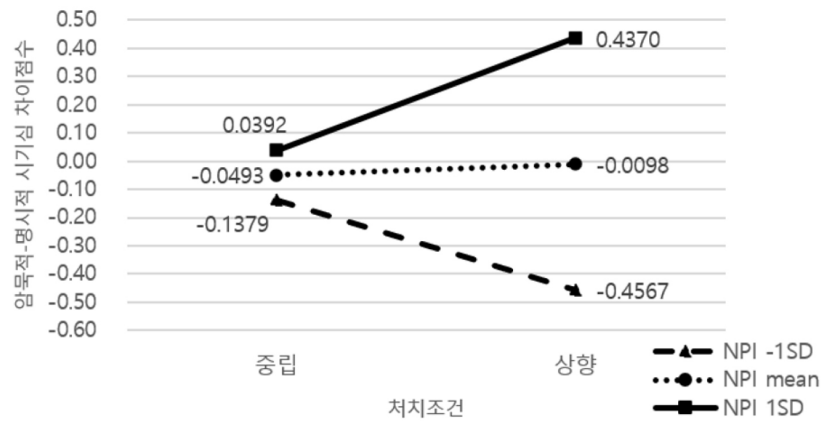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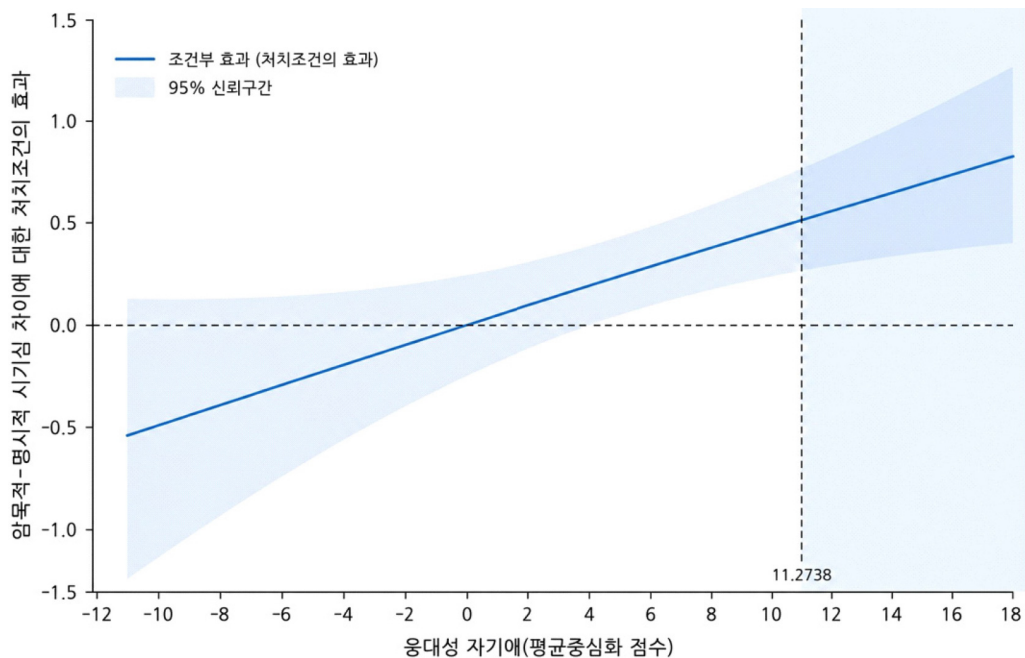


그림 5.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차이값에 대한 웅대성 자기애의 조절효과 Johnson-Neyman 도표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웅대성 자기애자가 언어적, 의식적 반응과 자동적, 비의식적 반응의 불일치를 보이는 역설적 특성에 기반하여,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과의 관계를 암묵적 시기심과 명시적 시기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상향비교 상황에서 웅대성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암묵적 시기심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명시적 시기심의 경우에는 상향비교 상황에서 웅대성 자기애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구가설 2도 지지되었다. 웅대성 자기애가 높을수록 암묵적 시기심과 명시적 시기심의 격차도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웅대성 자기애와 상관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통제했을 때 확인된 결과로 웅대성 자기애의 고유한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

상기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이용하여 시기심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Krizan & Johar, 2012; Neufeld & Johnson,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한 명시적 시기심은 웅대성 자기애와 관련되지 않았던 반면, 암묵적 측정을 통해 확인한 시기심은 웅대성 자기애가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웅대성 자기애자의 시기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동적이고 비의식적인 정서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암묵적 측정방법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암묵적 시기심과 명시적 시기심 간의 격차가 웅대성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웅대성 자기애자가 시기심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시기심이 의식적 수준에서는 충분히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제안된 마스크 모델(Mask Model)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월감과 자신감은 내면의 취약한 자기를 가리기 위한 성격적 방어라고 본다 (Kernberg, 2008; Kohut, 1971; Kuchynka & Bosson, 2018; Kampe et al., 2021). 이 모델에 근거한 Kohut과 Kernberg의 자기애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자기애적 성격의 발달과정과 병리적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충분한 공감과 반영이 부재한 경험이 누적되어 취약하고 열등한 자기감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거대한 자기상을 구축하면서 취약한 자기가 억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웅대성 자기애자가 의식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불일치, 혹은 분리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스크 모델이 설명하는 이러한 괴리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암묵적 연합검사(IAT), 이름 철자 선호 검사 등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웅대성 자기애자의 명시적 자존감은 매우 높았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비자기애자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김효주, 2010; Gregg & Sedikides, 2010). 또한 자기개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보고한 부정적 정서는 크지 않았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생리적·내분비적 반응과 관련 뇌영역

의 활성화는 비자기애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Cascio et al., 2015; Cheng et al., 2013; Edelstein et al., 2010; Harjunen et al., 2022). 웅대성 자기애가 강할수록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격차가 커진다는 본 연구 결과는 웅대성 자기애자의 의식적 반응과 자동적 반응 간의 괴리를 보고한 기존 연구들을 시기심 영역에서 재확인한 결과이며, 마스크 모델이 설명하는 역설적 자기애 특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웅대성 자기애자가 자기위협적 단서를 처리하는 방식은 억압자의 불안 경험을 설명하는 경계-회피(vigilance-avoidance) 이론(Derakshan et al., 2007)과 유사하다. 억압자의 경계-회피이론을 바탕으로 웅대성 자기애자의 암묵적-명시적 시기심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기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경계-회피 이론에서는 억압자가 위협 자극에 노출될 경우 초기에는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계단계를 보이지만, 이후에는 의식적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피단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회피는 주의편향, 해석편향, 기억편향과 같은 다양한 인지적 편향을 통해 이루어진다. 웅대성 자기애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보처리 양상이 보고되어 왔다. 웅대성 자기애자는 실패, 무가치함과 같은 자기위협적인 단서에 초기 경계-후기 회피 반응을 보였다(Horvath & Morf, 2009). 그리고 부정 단어일 때, 주의를 다른 곳으로 회피하는 정확도가 높았고(Krusemark et al., 2015),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에서 주의를 떼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Gu, He & Zhao, 2013). 또한,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성공보다 더 우월하게 보며(Gosling et al., 1998; Grijalva & Zhang, 2016), 이성에게 거절을 당

했을 때 과거의 이성과의 데이트가 성공적이었다고 회상하는 경향이 높았다(Rhodewalt & Eddings, 2002). 웅대성 자기애자가 불안 억압자와 비슷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해석해보면 웅대성 자기애자는 상향비교 자극에 노출될 때, 관련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기심이 강하게 촉발되지만, 뒤이어 관련 단서에 회피하면서 시기심을 억압하는 과정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임상적 함의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웅대성 자기애자에게서 명시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시기심이 암묵적 수준에서는 존재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임상적 관점과 경험연구의 주장이 서로 달랐다. 경험연구의 연구자는 ‘웅대성 자기애와 시기심은 관련이 없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서 시기심의 항목을 포함한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rizan & Johar, 2012). 그러나 임상적 관점에서는 웅대성 자기애자가 시기심을 방어적으로 억압하고 있을 뿐, 내면에는 강한 시기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비의식적, 자동적 수준에서 시기심을 확인함으로써 임상적 관점에서 제시해 온 ‘억눌려진 시기심’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경험연구의 결과가 자기보고가 가능한 의식적 정서에만 한정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웅대성 자기애의 자기개념과 관련된 인지내용이 아닌 정서 경험을 측정하였다. 기존에는 점화과제를 활

용하여 자기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내용을 주로 측정하였고, 암묵적 정서를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자기개념만이 아니라, 우월한 자기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기심과 같은 정서 경험 또한 의식적, 비의식적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웅대성 자기애의 내현적 측면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웅대성 자기애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부적응적인 정서반응은 약했기 때문에 주로 공격성, 공감능력, 대인관계와 같은 세상과 타인에게 발현되는 외현적인 요소에 포커스를 맞췄다(박창현, 2020; di Giacomo et al., 2023; Roche et al., 2013). 웅대성 자기애자의 정서 경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지 않은 만큼, 이들의 심리 내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심이라는 정서에 중점을 두고 암묵적 수준에서 측정을 시도함으로써, 웅대성 자기애자들이 경험하는 심리 내적 측면을 탐색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는 웅대성 자기애자가 자주 보여온 외현적 반응들을 이해하는데 좀더 입체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웅대성 자기애가 강할수록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가 심한데, 기존에는 평가절하를 우월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 정도로 설명하였다(Hepper et al., 2010; Kernis & Sun, 1994; Morf & Rhodewalt, 1993; South et al., 2003).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해보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암묵적 시기심이 강하고, 강한 암묵적 시기심이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동기화시켜서 평가절하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만큼 웅대성 자기애자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서 오귀인 절차에서 표적자극의 정서적 의미를 ‘생나는’과 ‘무관심한’이라는 두 가지 형용사로만 평가하여, 사회비교 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른 정서와 충분히 변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정서 오귀인 절차는 평가하고자 하는 정서개념이 증가할수록 반응선택지도 함께 늘어나는데, 이 경우 다수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과정에서 의식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자동적·비의도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분 선택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는 암묵적 반응을 포착하는 데는 유리한 반면, 상향비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기심과 다른 정서들을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자동적이고 암묵적 반응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유지하면서 시기심과 다른 부정 정서를 구별할 수 있는 실험설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암묵적 시기심을 측정을 할 때, 정서 오귀인 과제 외에도 생리적 측정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 오귀인 절차는 암묵적인 정서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서는 개념화가 가능한 감정 뿐만 아니라 생리적, 운동적 반응을 포함한다(Barrett, 2017; Scherer, 2005, 2009).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수준에서 활성화된 정서 개념을 측정하였고, 그와 함께 발생하는 다른 비언어적 정서반응은 확인하지 못했다. 비언어적 정서반응을 확인하는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웅대성 자기애자의 시기심 경험의 이중성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웅대성 자기애자의 암묵적 시기심과 명시적 시기심 간의 괴리를 유발하는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불안을 억압하는 억압자는 위협 자극에 노출될 경우 초기에는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후 회피반응을 통해 불안을 억제하는 경계-회피(vigilance-avoidance) 양상을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웅대성 자기애자 역시 자기위협적인 단서에는 초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후에는 위협 관련 단서를 회피하거나 긍정적인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처리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u, He, & Zhao, 2013; Horvath & Morf, 2009; Krusemark et al., 2015). 따라서 상향비교 상황에서 시기심과 같은 자기위협적 정서가 활성화된 이후, 이러한 경계-회피 정보처리 과정이 암묵적 시기심과 명시적 시기심 간의 괴리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한다면, 웅대성 자기애의 역설적인 정서경험과 정서 억압 기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도미상).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김준홍, 정남운. (2019). 자살 시도, 비자살적 자해 행동의 설명을 위한 암묵적 연합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511-546.
<https://doi.org/10.17315/kjhp.2019.24.3.002>
- 김지혜, 김상학. (2022). 가치 연구와 이중과정 이론(Dual-Process Theory): 암묵적 인지 측정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학*, 56(3), 1-44.
<https://doi.org/10.21562/kjs.2022.08.56.3.1>
- 김효주. (2010). 자기애 성향자들의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석사학위, 가톨릭대학교].
<https://www-riss-kr.proxy.cau.ac.kr/link?id=T11876025>
- 박창현. (2020). 자기애의 핵심 특성과 표현 차이에 관한 메타 분석 [석사학위, 한양대학교].
<https://www-riss-kr.proxy.cau.ac.kr/link?id=T15483727>
- 배현영. (2016). LMXSC가 동료 간 도움행동과 횡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기심(Envy)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https://www-riss-kr.proxy.cau.ac.kr/link?id=T14067164>
- 양진원, 권석만. (2016).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narcissists with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1), 215-242.
<https://accesson.kr/kjcp/v.35/1/215/16963>
- 이은지. (2024). # 오운완, Z세대의 헬시플레저: 사회적 비교성향과 과시적 자기애, 자존감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10(2), 11-16.
<https://doi.org/10.17703/JCCT.2024.10.2.11>
- 이홍숙. (2019). 대학생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의 관계: SNS 중독경향성과 시기심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5), 137-157.

- <https://doi.org/10.15703/kjc.20.5.201910.137>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전향량. (2016). 여중생의 질투 및 시샘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석사학위, 계명대학교].
<https://www-riss-kr.proxy.cau.ac.kr/link?id=T14046969>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https://accesson.kr/kcpa/v.13/2/221/25269>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 특성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https://www-riss-kr.proxy.cau.ac.kr/link?id=T7660473>
- Abdellatif, M. (2022). The impact of social media on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omparison, envy and self-esteem. *Information Sciences Letters*, 11(5), 1805-1813.
<https://doi.org/10.18576/isl/110533>
- Barrett, L. F. (2017). The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 An active inference account of interoception and categorizatio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2(1), 1-23.
<https://doi.org/10.1093/scan/nsw154>
- Baumel, A., & Berant, E. (2015).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in malicious env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5, 1-9. <https://doi.org/10.1016/j.jrp.2014.11.001>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https://doi.org/10.1037//0022-3514.75.1.219>
- Cameron, C. D., Brown-Iannuzzi, J. L., & Payne, B. K. (2012). Sequential priming measures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A meta-analysis of associations with behavior and explicit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4), 330-350.
<https://doi.org/10.1177/1088868312440047>
- Cascio, C. N., Konrath, S. H., & Falk, E. B. (2015). Narcissists' social pain seen only in the brai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0(3), 335-341.
<https://doi.org/10.1093/scan/nsu072>
- Casu, G. (2015). *Envy: A psychometric refinement of the construc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gliari].
<https://iris.unica.it/>
- Cheng, J. T., Tracy, J. L., & Miller, G. E. (2013). Are narcissists hardy or vulnerable? The role of narcissism in the production of stress-related biomarkers in response to emotional distress. *Emotion*, 13(6), 1004-1011.
<https://doi.org/10.1037/a0034410>
- Cohen-Charash, Y. (2009). Episodic env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9), 2128-2173.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9.00519.x>

- Crusius, J., & Lange, J. (2014). What catches the envious eye? Attentional biases within malicious and benign env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5*, 1-11.
<https://doi.org/10.1016/j.jesp.2014.05.007>
- Derakshan, N., Eysenck, M. W., & Myers, L. B. (2007). 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repressors: The vigilance-avoidance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21*(8), 1585-1614.
<https://doi.org/10.1080/02699930701357513>
- di Giacomo, E., Andreini, E., Lorusso, O., & Clerici, M. (2023). The dark side of empathy in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Frontiers in Psychiatry, 14*, Article 1074558.
<https://doi.org/10.3389/fpsy.2023.1074558>
- Edelstein, R. S., Yim, I. S., & Quas, J. A. (2010). Narcissism predicts heightened cortisol reactivity to a psychosocial stressor in me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5), 565-572.
<https://doi.org/10.1016/j.jrp.2010.06.008>
- Egan, V., Chan, S., & Shorter, G. W. (2014). The dark triad,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7*, 17-22.
<https://doi.org/10.1016/j.paid.2014.01.004>
- Farwell, L., & Wohlwend-Lloyd, R. (1998).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evaluations, and self-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6*(1), 65-83.
<https://doi.org/10.1111/1467-6494.00003>
- Fazio, R. H. (2001).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ssociated evaluations: An overview. *Cognition and Emotion, 15*(2), 115-141.
<https://doi.org/10.1080/0269993004200024>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229-238.
<https://doi.org/10.1037/0022-3514.50.2.229>
- Gosling, S. D., John, O. P., Craik, K. H., & Robins, R. W. (1998). Do people know how they behave? Self-reported act frequencies compared with on-line codings by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37-1349.
<https://doi.org/10.1037/0022-3514.74.5.1337>
- Gregg, A. P., & Sedikides, C. (2010). Narcissistic fragility: Rethinking its links to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9*(2), 142-161.
<https://doi.org/10.1080/15298860902815451>
- Grijalva, E., & Zhang, L. (2016). Narcissism and self-insight: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narcissists' self-enhancement tendenc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1), 3-24.
<https://doi.org/10.1177/0146167215611636>
- Gu, Y., He, N., & Zhao, G. (2013). Attentional bias for performance-related words in individuals with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6), 671-675.

- <https://doi.org/10.1016/j.paid.2013.05.015>
- Gyurak, A., Gross, J. J., & Etkin, A. (2011). Explicit and implicit emotion regulation: A dual-process framework. *Cognition and Emotion*, 25(3), 400-412. <https://doi.org/10.1080/02699931.2010.544160>
- Hardaker, M., Sedikides, C., & Tsakanikos, E. (2021). Hypervigilance to self-threat: Further experimental evidence for the mask model of narcissism. *Self and Identity*, 20(2), 297-310. <https://doi.org/10.1080/15298868.2019.1667862>
- Harjunen, V. J., Krusemark, E. A., Stigzelius, S., Halmesvaara, O. W., Annala, M., Henttonen, P., ... & Ravaja, N. (2023). Under the thin skin of Narcissus: Facial muscle activity reveals amplified emotional responses to negative social evaluation in individuals with grandiose narcissistic traits. *Psychophysiology*, 60(9), Article e14315. <https://doi.org/10.1111/psyp.14315>
- Hart, W., Tortoriello, G. K., Richardson, K., & Breeden, C. J. (2020). Substantive vs. superficial self-enhancement: Differentiating narcissism constructs from self-esteem following fail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2, Article 109560. <https://doi.org/10.1016/j.paid.2019.109560>
- Hepper, E. G., Gramzow, R. H., & Sedikides, C. (2010).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self-protection strategies: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8(2), 781-814.
- Hill, S. E., DelPriore, D. J., & Vaughan, P. W. (2011).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envy: Attention, memory, and self-regulatory deple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4), 653-666. <https://doi.org/10.1037/a0023904>
- Horner, A. J., & Henson, R. N. (2008). Priming, response learning and repetition suppression. *Neuropsychologia*, 46(7), 1979-1991. <https://doi.org/10.1016/j.neuropsychologia.2008.01.018>
- Horvath, S., & Morf, C. C. (2009). Narcissistic defensiveness: Hypervigilance and avoidance of worthless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6), 1252-1258. <https://doi.org/10.1016/j.jesp.2009.07.011>
- Kampe, L., Bohn, J., Remmers, C., & Hörz-Sagstetter, S. (2021). It's not that great anymore: The central role of defense mechanisms in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Frontiers in Psychiatry*, 12, Article 661948. <https://doi.org/10.3389/fpsy.2021.661948>
- Kernberg, O. F. (2004). *Aggressivity, narcissism, and self-destructiveness in the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 Yale University Press.
- Kernberg, O. F. (2008).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윤순임 외 역). 학지사. (원전은 1985에 출판)

- Kernis, M. H., & Sun, C. R. (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1), 4-13.
<https://doi.org/10.1006/jrpe.1994.1002>
- Kihlstrom, J. F., Mulvaney, S., Tobias, B. A., & Tobis, I. P. (2000). The emotional unconscious. *Cognition and Emotion, 14*(4), 523-550.
- Kleemans, M., Daalmans, S., Carbaat, I., & Anschutz, D. (2018). Picture perfect: The direct effect of manipulated Instagram photos on body image in adolescent girls. *Media Psychology, 21*(1), 93-110.
<https://doi.org/10.1080/15213269.2016.1257392>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 Kohut, H. (1966). Forms and transform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4*(2), 243-272.
<https://doi.org/10.1177/000306516601400201>
- Krizan, Z., & Johar, O. (2012). Envy divides the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80*(5), 1415-1451.
<https://doi.org/10.1111/j.1467-6494.2012.00767.x>
- Krusemark, E. A., Lee, C., & Newman, J. P. (2015). Narcissism dimensions differentially moderate selective attention to evaluative stimuli in incarcerated offender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6*(1), 12-21.
<https://doi.org/10.1037/per0000093>
- Kuchynka, S. L., & Bosson, J. K. (2018). The psychodynamic mask model of narcissism: Where is it now? In A. D. Hermann, A. B. Brunell, & J. D. Foster (Eds.), *Handbook of trait narcissism: Key advances, research methods, and controversies* (pp. 89-95).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https://doi.org/10.1007/978-3-319-92171-6_10
- Lange, J., Crusius, J., & Hagemeyer, B. (2016). The evil queen's dilemma: Linking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to benign and malicious env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0*(2), 168-188.
<https://doi.org/10.1002/per.2047>
- Lange, J., Weidman, A. C., & Crusius, J. (2018). The painful duality of envy: Evidence for an integrative theory and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 of envy and schadenfreu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4*(4), 572-598.
<https://doi.org/10.1037/pspi0000118>
- Li, Y. (2019).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in social network settings: The roles of envy and self-efficacy. *Internet Research, 29*(1), 46-59.
<https://doi.org/10.1108/IntR-09-2017-0358>
- Lim, M., & Yang, Y. (2015). Effects of users' envy and shame on social comparison that occurs on social network servi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1*, 300-311.
<https://doi.org/10.1016/j.chb.2015.05.013>
- Lim, M. S., & Kim, J. (2018). Facebook users'

- loneliness based on different typ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inks to grandiosity and envy.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3(3), 646-665.
<https://doi.org/10.1108/ITP-04-2016-0098>
- Mauss, I. B., Bunge, S. A., & Gross, J. J. (2007). Automatic emotion regulat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146-16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05.x>
- Marissen, M. A., Brouwer, M. E., Hiemstra, A. M., Deen, M. L., & Franken, I. H. (2016). A masked negative self-esteem?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n patients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242, 28-33.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6.05.007>
- McRae, K., Misra, S., Prasad, A. K., Pereira, S. C., & Gross, J. J. (2012). Bottom-up and top-down emotion generation: Implications for emotion regulatio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7(3), 253-262.
<https://doi.org/10.1093/scan/nsr094>
- Miller, J. D., McCain, J., Lynam, D. R., Few, L. R., Gentile, B., MacKillop, J., & Campbell, W. K. (2014). A comparison of the criterion validity of popular measures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via the use of expert ratings. *Psychological Assessment*, 26(3), 958-969.
<https://doi.org/10.1037/a0036614>
- Morf, C. C., & Rhodewalt, F. (1993).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s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6), 668-676.
-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204_1
- Neufeld, D. C., & Johnson, E. A. (2018). Narcissism's relationship with envy: It's complicated. In A. D. Hermann, A. B. Brunell, & J. D. Foster (Eds.), *Handbook of trait narcissism: Key advances, research methods, and controversies* (pp. 363-370).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92171-6_39
- Payne, B. K., Cheng, C. M., Govorun, O., & Stewart, B. D. (2005). An inkblot for attitudes: Affect misattribution as implicit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277-293.
<https://doi.org/10.1037/0022-3514.89.3.277>
- Payne, K., & Lundberg, K. (2014). The affect misattribution procedure: Ten years of evidence on reliability, validity, and mechanism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8(12), 672-686.
<https://doi.org/10.1111/spc3.12148>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21208.131215>
- Raskin, R. N.,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https://doi.org/10.1037/0022-3514.54.5.890>
- Reingold, E. M., & Merikle, P. M. (1988). Using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to study perception without awareness. *Perception & Psychophysics*, 44(6), 563-575. <https://doi.org/10.3758/BF03207490>
- Rhodewalt, F., & Eddings, S. K. (2002). Narcissus reflects: Memory distortion in response to ego-relevant feedback among high- and low-narcissistic me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2), 97-116.
<https://doi.org/10.1006/jrpe.2001.2337>
- Roche, M. J., Pincus, A. L., Lukowitsky, M. R., Ménard, K. S., & Conroy, D. E. (2013).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3), 237-248.
<https://doi.org/10.1080/00223891.2012.740703>
- Rohr, M., Degner, J., & Wentura, D. (2015). The “emotion misattribution” procedure: Processing beyond good and bad under masked and unmasked presentation conditions. *Cognition and Emotion*, 29(2), 196-219.
<https://doi.org/10.1080/02699931.2014.89861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rer, K. R. (2005). What are emotions? And how can they be measured? *Social Science Information*, 44(4), 695-729.
<https://doi.org/10.1177/0539018405058216>
- Scherer, K. R. (2009). The dynamic architecture of emotion: Evidence for the component process model. *Cognition and Emotion*, 23(7), 1307-1351.
<https://doi.org/10.1080/02699930902928969>
- Schmidt, F., Haberkamp, A., & Schmidt, T. (2011). Dos and don'ts in response priming research. *Advances in Cognitive Psychology*, 7(2), 120-131.
<https://doi.org/10.2478/v10053-008-0092-x>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400-416.
<https://doi.org/10.1037/0022-3514.87.3.400>
- Smith, R., & Lane, R. D. (2015). The neural basis of one's own conscious and unconscious emotional state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57, 1-29.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15.08.003>
- Smith, R., & Lane, R. D. (2016). Unconscious emotion: A cognitive neuroscientific perspective.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69, 216-238.

-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16.08.001>
- Smith, R. H., & Kim, S. H. (2007). Comprehending envy. *Psychological Bulletin*, 133(1), 46-64.
<https://doi.org/10.1037/0033-2909.133.1.46>
- South, S. C., Oltmanns, T. F., & Turkheimer, E. (2003). Personality and the derogation of others: Descriptions based on self- and peer repor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1), 16-33.
- Tesser, A., & Collins, J. E. (1988). Emotion in social reflection and comparison situations: Intuitive, systematic, and exploratory approach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5), 695-709.
<https://doi.org/10.1037/0022-3514.55.5.695>
- Teige-Mocigemba, S., Becker, M., Sherman, J. W., Reichardt, R., & Klauer, K. C. (2017). The affect misattribution procedure: In search of prejudice effects. *Experimental Psychology*, 64(3), 215-230.
<https://doi.org/10.1027/1618-3169/a000364>
- Tucker, R. P., Wingate, L. R., Burkley, M., & Wells, T. T. (2018). Implicit association with suicide as measured by the suicide affect misattribution procedure (SAMP) predicts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8(4), 463-476.
<https://doi.org/10.1111/sltb.12372>
- Xin, Z. W., Lei, C. H., & Yong, L. M. (2022). Forced-choice prime visibility test: Unraveling the target sequential effect. *Allied Journal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10(2), 1-13.
- Zeigler-Hill, V., Clark, C. B., & Pickard, J. D. (2008). Narcissistic subtypes and contingent self-esteem: Do all narcissists base their self-esteem on the sam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76(4), 753-774.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8.00503.x>
- Zeigler-Hill, V., Clark, C. B., & Pickard, J. D. (2008). Narcissistic subtypes and contingent self-esteem: do all narcissists base their self-esteem on the sam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76(4), 753-774.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8.00503.x>
- 원고접수일: 2026년 7월 31일
논문심사일: 2026년 8월 18일
게재결정일: 2026년 8월 18일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iose Narcissism and Implicit and Explicit Envy Following Upward Social Comparison

Mijung Kim

Myoung Ho Hyun

Yejin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je University

This study addressed the conflict between empirical and clin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iose narcissism and envy. Because earlier findings point to a discrepancy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responses, envy was assessed at both levels: explicit envy with a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implicit envy with the Affect Misattribution Procedure (AMP). A total of 114 undergraduate students took part in either an upward social comparison condition ($n=56$) or a neutral comparison condition ($n=58$). Grandiose narcissism did not moderate the effect of the comparison condition on explicit envy. It did, however, significantly moderate the effects of the comparison condition on implicit envy and on the discrepancy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envy. These findings support the mask model, according to which the grandiose self serves to defend against and conceal an underlying vulnerable self.

Keywords: grandiose narcissism, explicit envy, implicit envy, upward social comparison